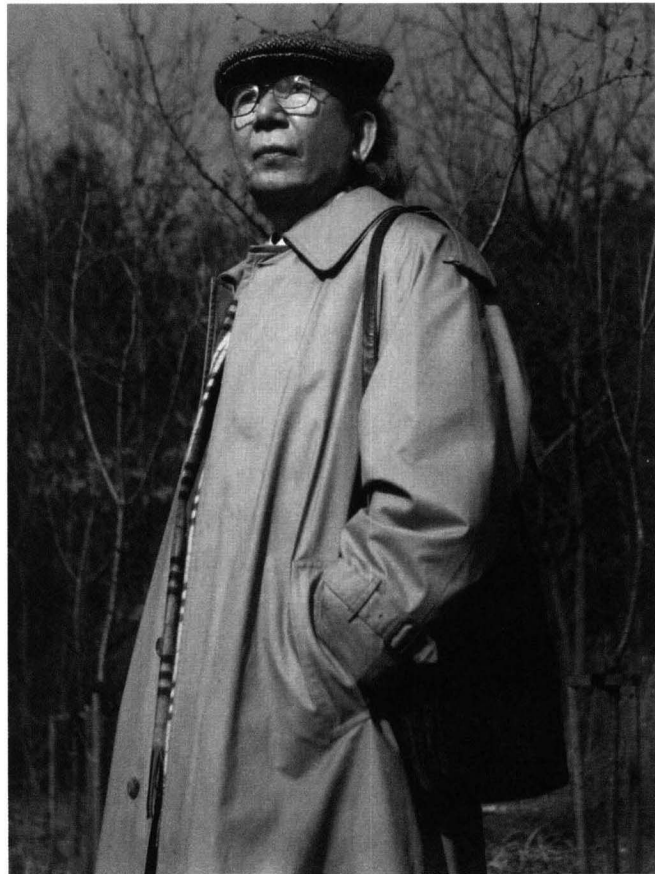


# 운명을 만나는 자리 《광장》은 현재 진행형

## 한국문학 반세기의 화두를 살아온, 작가 최인훈

“운명을 만나는 자리를 광장이라고 합시다. 광장에 대한 풍문도 구구합니다. 제가 여기 전하는 것은 풍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장에 있으려고 한 우리 친구의 얘깁니다.”(〈새벽〉, 1960년 10월 서문 중에서)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을 가슴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한 작가 최인훈(72). 선생의 대표적인 소설 《광장》이 1960년 10월, 〈새벽〉지에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독자들의 가슴 한 복판에 '이명준'의 초상이 대물림되어온 이유는 무엇일까. 《문학과 이데올로기》(1980)에서 선생은 '소설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말했던 것처럼 선생의 소설에서는 개인의 문제인가 하면 역사이고, 역사가가 하면 개인의 문제임을 읽을 수 있다. 그렇기에 운명을 만나는 자리 《광장》은 현재도, 미래에도 진행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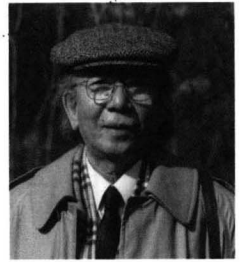


**선**생과의 인터뷰는 어렵게 성사됐다. 다행히 선생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게 만들었던 '문학'이라는 분모(分母)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고양시 화정에서 6년째 살고 계시다는 선생의 아파트로 찾아가던 날은 음력 1월임에도 따뜻한 봄볕이 이마를 통해 몸속으로 흘렀다. 선생의 산책길이기도 한 근처 배나무 밑에 있는 공원에서 사진을 먼저 찍고 선생의 맥에서 본격적인 인터뷰가 이뤄졌다.

《광장》은 분단의 문제를 남북 모두 비판적으로 다룬 최초의 소설이다. 당시 4·19혁명과 맞물려 이데올로기나 체제 비판의 새로운 차원을 개척한 기념비적 작품이다. 이후에 나온 이데올로기 주제의 작품들은 모두 《광장》이 열어놓은 문을 거쳤다고 형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인훈 전집〉을 펴낸 문학과지성사 김수영 편집주간에 의하면 “선생의 대표작 《광장/구운몽》은 1976년 초판이 출간된 이후 지금까지 55만부 이상 팔렸다”고 전했다. 3월 9일에 152쇄 본이 나온다.

선생의 작품들이 스테디셀러라는 기자의 말에 “정말 기쁘다”며 정중히 독자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했다. 《광장/구운몽》《회색인》《서유기》《화두》 등 선생의 소설은 독자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기에 부족하지 않다. 이에 대해 선생은 “작가한테는 주어진 ‘운명적인 주제’라는 게 있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광장》을 비롯한 나의 소설들은 처음부터 분단의 현실과 이데올로기를 다루고자 문학생활에 들어선 것은 아니지만, 회고해보면 결국 후대 사람들이 본다면 분단과 이데올로기 문제는 평생 동안 내 문학경력의 큰 줄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문학은 선생의 생애와 무관하지 않다. 함경북도 회령이 고향인 그는 6.25 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와 반세기 이상을 살아오고 있다. ‘고향상실자’라는 것, 그 원인이 ‘전쟁’이라는 것, 그리고 전쟁의 원인이 대의명분으로서는 ‘이데올로기’라는 점이라고 봤을 때 그의 소설은 역사적 사실인가 하면 개인사이고, 개인사인가 하면 곧 역사적 사실이다.



최인훈(崔仁勳, 1936~)

함경북도 회령 출생. 1950년 월남 후 목포고교를 거쳐 서울법대에서 수학 4학년 중퇴, 육군에서 통역 장교로 근무. 1959년 <자유문학>에 <그레이(GREY) 구락부 전말기>를 발표하면서 등단. 1960년 <새벽>에 <광장>을 발표.

주요작품은 <문학을 찾아서>(평론집), <길에 관한 명상>(산문집), <광장> <회색인> <구운몽> <서유기> <태풍> <하늘의 다리/두만강> <우상의 집> <옛날 옛적에 휘어지 휘어지>(희곡집) <총독의 소리> <소설가 구보씨의 1일> <화두> <유토피아의 꿈> <문학과 이데올로기> <바다의 편지> 등. 동인문학상(1966), 한국연극영화예술상 희곡상(1977), 중앙문화대상 예술부문 장려상(1978), 서울극평가그룹상(1979), 서울시문화상(1979), 문화훈장(보관), 이산(伊山) 문학상(1994) 수상.

“역시 작가는 자기한테 제일 가깝거나 아팠거나 상처받은 것에 집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작가 혼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기도 해요. 소설의 큰 줄기인 분단과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상처일 뿐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전적으로든지 부분적으로든지 작가의 설명에 독자가 납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본질적인 문제는 선생의 작품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 선생은 <광장> 1973년판 서문에 이런 글을 썼다. ‘우리가 인생을 모르면서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것처럼, 소설가는 인생을 모르면서도 주인공을 삶의 깊이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광장>을 썼을 때 나도 주인공과 비슷한 나이였으니까 대단한 지식과 지혜는 없었지요. 다만 <광장>이 가진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겪는 문제를 국지적인 전쟁이나, 정치라는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20세기 문명과 더 나가서 인류문명의 자기 개선적 문맥과 연관시켜보려는 입장인데, 이런 태도가 후기에 올수록 더 자각적이 되면서 <화두>라는 작품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자꾸 쌓여가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직접 겪지 않았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준 전쟁상태에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본다면 <광장> 안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국 현대문학 중에서 전쟁이나 이데올로기를 다룬 작품들이 큰 흐름을 이룬다.

“마치 사람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에도 사랑하고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10대나 20대의 사랑이 절실하고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처음 겪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처음은 처음이라는 사실 자체가 의미기도 합니다. 인생은 한 번 밖에 못살고 한 번만 죽는 것처럼, 인생 자체의 일회성의 순수형태가 젊음이라고 생각해요. <광장>에는 이후에 이데올로기 상황이 습관화 되기 전의 말하자면 이데올로기 상황의 첫사랑 같은 분위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광장>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은 <광장>에서 이명준을 바다 심층에 보낸 이후로 적잖은 수의 잠수부를 해역에 내려보냈다. 그 운명에 슬퍼하고 그들을 사랑했다. 선배 소설가로서 후배 소설가들의 ‘운명적인 주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금 소설가들은 자기 시대의 운명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어느 세대이든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쓰는 것이지, 누가 이렇게 써라 말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세상에는 다양한 꽃이 많은 게 좋죠. 장미꽃이 예쁘다고 온 나라에 장미꽃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마 장미꽃은 보기 싫은 꽃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소설이 스테디셀러가 되기 위한 미덕에 대해서 ‘보편적인 황금률’을 꼽는다. 딱히 꼬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적절, 조화, 균형, 예의 등 소설뿐만 아니라 인간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보편적 가치를 의미한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시공을 초월해 통하지 않을까.

인터뷰 내내 고회를 넘긴 선생에게서 문학적 생기가 넘친다. 선생이 밝아온 운명적 생을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광장>에서 자리잡힌 주제는 그의 문학의 주류가 되어 후기의 대작 <화두>(1994)에서 큰 바다에 들 어서고, 최근작 <바다의 편지>(2003)에서는 우주론적 승화의 경지를 보임으로써 <광장>을 사랑해준 독자들에게 풍요한 사유의 향연을 마련해 놓고 있다. <광장>의 애독자들은 이 향연에 초대받을 가장 소중한 손님이 되는 셈이다. ■

취재 정윤희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